

東學의 發展過程에 대한 考察

(甲午農民蜂起와 관련하여)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高 天 一


指導教授 高 性 俊


1986年 10月 日

高天一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李萬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副審 康根亨 

副審 尹承勳 

1986年10月 日

目 次

I. 序 論	2
1. 研究의 目的	2
2. 研究의 範圍와 制限點	3
II. 19世紀 朝鮮의 時代的 狀況과 東學의 擡頭	5
1. 19世紀 朝鮮의 時代的 狀況	5
2. 東學의 發生	12
3. 東學의 中心思想	13
III. 東學의 發展過程과 政治的 限界性	17
1. 東學의 發展過程	17
2. 政治的 限界性	26
IV. 東學과 甲午農民蜂起	30
1. 甲午農民蜂起의 展開過程	30
2.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와의 關係	34
V. 結 論	39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1894 年의 甲午農民蜂起¹⁾는 韓國 近代史의 큰 분수령을 이루는 사실로서 매우 重要한 歷史的 意義를 지니고 있지만, 甲午農民蜂起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지닌 視角의 差異點으로 말미암아 東學²⁾과 甲午農民蜂起와의 關係, 그리고 甲午農民蜂起에 對한 概念定立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問題에 對한 學界의 多樣한 學說을 考察해보면, 申福龍 教授는 東學을 歷史的으로 區分하여 그것의 唱道(1860)로부터 教祖伸冤運動이 일어난 1893 年까지는 순수한 宗教運動으로 보며, 甲午年(1894)의 古阜民亂에서 시작된 통칭 東學亂 또는 東學革命은 宗教運動의 視角에서 볼 것이 아니라 朝鮮王朝後期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는 民亂에 東學이라고 하는 宗教的 정열이 가미된 것으로 보고 있다.³⁾ 따라서 1894 年의 農民蜂起는 民亂과 民族主義의 各성이 獨立變數이요, 東學이라고 하는 宗教性은 하나의 從屬變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民亂이라고 하는 큰 脈이 있었고 이것이 發展하는 과정에 있어서 東學이라고 하는 宗教가 여기에 合流한 것으로 보고 있다.

金昌洙教授는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 1) 本 論文에서의 甲午農民蜂起라는 말은 1894 年 全羅道 古阜郡에서 일어난 民亂이 發展되어 1 年동안 繼續된 일련의 사건을 말하는 바, 사실상 이러한 名稱은 오늘날 多樣하게 사용되고 있다. 本 研究의 의도는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와의 關係에 對한 考察에 있으므로, 1894 年이라는 年代를 使用하고, 甲午農民蜂起가 지닌 性格으로서의 革命性과 運動性을 區分하여 本 研究의 結論部門에서 比較 考察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革命性과 運動性을 다 包含할 수 있는 蜂起라는 用語를 使用해 甲午農民蜂起라고 表現하고자 한다.
- 2) 여기서의 東學이라는 概念은 思想·教門을 包含한 內容으로 使用되고 있음.
- 3) 申福龍, “東學의 唱道와 展開過程,” 「한국정치학회보」, 제 18 집, 한국정치학회, 1984, P.301.

東學은 일련의 宗教運動(教祖伸冤運動)을 통하여 政治的 力量強化와 組織化・集團化 過程을 거치면서 宗教的 要求以外에 農民의 社會的 要求와 結合하여 갔다.⁴⁾

即, 初期 東學이 지녔던 觀念論的인 性格에서 實踐的 社會革命運動으로 展開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李炫熙 教授는 甲午農民蜂起를 革命성과 運動性으로 比較하여 그것이 지니고 있는 革命性을 強調하면서 東學革命이라는 性格으로 定立하고 있다.⁵⁾

그리고 金容燮 教授는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와의 關係를 完全히 否認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⁶⁾

이와같은 學者들의 상반된 見解는 東學이라는 宗教를 통하여 甲午農民蜂起를 考察하는 過程에서 東學을 너무 過大評價하거나 또는 甲午農民蜂起를 東學과는 상관없이 다루는데서 생겨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 있어서는 東學의 發展過程에서 나타나는 東學의 性格을 考察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것이 甲午農民蜂起와는 어떠한 聯關性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究明코자 한다.



2. 研究의 範圍와 制限點

本 研究의 의도는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와의 關係에 對한 것을 主안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時期的 區分을 1860年 東學의 창도로부터 甲午農民蜂起가 發生하여 終結되는 1894年까지에 限定하고 있으며, 東學의 思想 가운데 甲午農民蜂起에 影響을 줄 수 있는 侍天主・后天開闢・護國思想에 限定하여 다루고자 한다.

本 論文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4) 金昌洙, “東學革命運動과 東學教門,” 이현희 편, 「東學思想과 東學革命」 (서울:청아출판사, 1984), PP.236~341.

5) 李炫熙, “「東學革命」인가 「東學運動」인가,” 上揭書, PP.61~68.

6) 金容燮, “전봉준 공초의 分析,” 노태구 편, 「東學革命의 研究」 (서울:백산서당, 1981), PP.203~205.

제Ⅱ장에서는 앞으로 展開될 本 研究의 主題와 關聯된 몇 가지 사실을 살필 것이다. 우선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의 時代的 背景을 社會經濟的·政治的·思想的으로 區分하여 考察해 봄으로써 東學과 甲午農民蜂起가 發生할 수 있었던 時代的 狀況性を 確認코자 한다. 다음은 東學의 發生過程과 東學의 中心思想을 考察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東學이 일련의 教祖伸冤運動을 通하여 發展하는 過程을 살펴본 후, 이러한 發展過程에서 나타나는 東學에 內包된 政治的 限界性を 考察하여 東學이 直接的으로 甲午農民蜂起와 결부될 수 없는 點을 確認하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와의 關係를 考察하기 위하여 먼저 甲午農民蜂起의 展開過程을 살펴본 후,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와의 關係를 考察하고 있다.

제Ⅴ장에서는 甲午農民蜂起가 가지고 있는 歷史的 의의에 대해서 考察하고 있다.



II. 19世紀 朝鮮의 時代的 狀況과 東學의 擡頭

東學發生과 甲午農民蜂起가 相互關聯된 時代的 背景을 考察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考慮해야 할 問題는 歷史의 어느 時代에 發生했던 思想과 事件에 對하여 어느 정도의 狀況性을 考慮해야 할 것인가 하는 點이다. 한 時代를 풍미했던 思想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社會運動이 그 時代를 先導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 時代의 產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東學發生의 時代的 狀況에 論議의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하자.

1. 19世紀 朝鮮의 時代的 狀況

가. 社會經濟的 背景

李朝의 社會制度는 양반을 支配階層으로 하는 身分社會였다. 그런데 이 양반중심의 身分體制가 17C 이후 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하여 19C에 이르면 急激한 身分制度의 動요현상으로 인하여 양반이라고 불리우는 支配層의 社會的 存在 의의가 흐려져 가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¹⁾

양반支配層의 動搖는 社會의 基層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良人農民들 중에는 農業技術의 發達로 富農으로 成長하여 양반신분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반면에 官家나 勢道家의 大土地所有가 擴大됨에 따라서 일부 農民들은 零細小作農으로 轉落하였다. 그런가 하면 農民들 중에는 土地를 잃고 農業賃金勞動者가 發生하게 되어 農民層은 內的으로 層化作을 거듭하면서 傳統的 身分 價値觀에서 疏外되어 갔다.²⁾ 哲宗 9年(1858)에는 양반계급이 全人口의 65.5%에 달하는 奇現象이 若起되어³⁾ 一般產

1) 李基白, 「한국사 신론」 (서울: 일조각, 1978), P.299.

2) 鄭鎮午, “東學의 政治思想,”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 20집, 1985, P.23.

3) 朴文玉, 「한국정부론」 (서울: 백영사, 1963), P.45.

業에 從事하는 소위 生産階級인 常民은 그들 보다 全國家의 階層別 人口分布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不勞上典의 搾取와 橫暴로 因하여 苦痛을 겪었다. 이러한 現象은 常民階級이 他地方으로 이주하여 양반신분을 冒稱 하거나 매관매직이나 기타 연줄을 타고 社會的 身分을 높인다거나 또는 천민계급이 그 上典의 族譜를 위조하여 먼 他地方에 가서 양반행세를 하는데 主要原因이 있다.

이와같은 19世紀 朝鮮社會의 身分制度의 動搖現象은 이제까지 社會의 統合機能의 役割을 擔當해온 封建的 階級社會의 嚴格한 階層意識을 희미하게 만든 結果를 超來하여, 이러한 과정속에서 社會不安意識이 고조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것은 甲午農民蜂起의 與件造成에 提供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당시의 社會的 不安과 農民亂에 對해서 考察하면, 收取體制의 紊亂으로 農民들은 直接的 被害를 입었다. 또한 自然의 災害도 그치지 않았는데, 1851年~1861年間에 5회의 가뭄, 8회의 洪水, 3회의 惡疾流行이 있었다.⁴⁾

이러한 狀況에서 農民들은 民亂이라는 비상수단을 행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이것은 農民反亂이 아니라 당연한 權利를 주장하는 農民運動의 性格으로 擴散되었다.⁵⁾

經濟的 背景을 考察해보면, 19世紀 朝鮮經濟는 農業을 위주로 하는 農業國家로서 매우 뒤떨어진 狀態에 있었다. 그리고 1876年 朝·日間에 修好條約이 체결되어 門戶가 開放되자 西歐資本主義 國家의 經濟的 侵透는 經濟的 과탄을 초래하였다. 특히 日本人들은 條約으로 차지하게 된 治外法權·自由貿易·數年間關稅免除 등의 諸 特權을 방패로 여타 外國人 보다도 그들의 經濟的 勢力을 朝鮮에 침수시켜왔다. 日本의 漁民들은 朝鮮의 全 沿岸을 에워싸고 漁撈에 從事하여 朝鮮에 있어서의 交易밖의 收益을 獨點하여 열등한 朝鮮漁民들은 그들에게 壓倒되어 沒落하지 않을 수 없었다.⁶⁾

4) 鄭鎮午, 前揭論文, P.23.

5) 李鉉琮, 「韓國의 歷史」, (서울:대왕사, 1983), P.343.

6) 韓佑肋, “농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연구」, 제3집, 고려대학교, 1964. P.175.

개항이래로 米穀은 大豆와 같이 日本으로 流出되었다. 朝鮮政府로서도 개항 당초부터 穀物의 國外流出이 초래할 國內的인 惡影響, 즉 米穀價 昂騰과 이에 따르는 物價 昂騰에 對하여 우려하였던 것이며, 凶년에는 臨時措置로 穀物의 輸出을 禁止할 수 있는 規定을 定하였으나 이것은 유명무실해지고, 1889年까지는 大豆가 1890年부터는 米穀이 朝鮮의 輸出額中의 最高위를 차지하게 되어, 그것은 모두 日本에도 輸出되었다. 米穀의 日本輸出은 日本의 米價가 朝鮮에 있어서의 米價에 直接 影響을 미치게 되었고 그것은 必然的으로 朝鮮에 있어서의 米價의 昂騰을 超來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國內의 生活必須品價格을 昂騰시키는 것이었다. 國內의 米價는 150兩에서 350兩으로 거의 三倍의 昂騰을 보게 하였다.⁷⁾ 그리하여 궁핍한 農民으로하여금 이같은 米價의 昂騰은 도리어 더욱 困窮에 시달리게 하였으며, 특히 그것은 外勢에 대한 그들의 거부감이 싹트기 시작한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나. 政治的 背景



19世紀에 들어서면서 漸次 國內外的 矛盾的 狀況으로 因하여 朝鮮王朝는 무너져 갔다. 그 前半期에는 밖으로부터는 西歐資本主義國家의 影響과 侵略이 아시아 여러 地域에 점차 깊숙히 파고 드는 가운데 그들의 外交, 軍事的 壓力, 그리고 洋貨에 의한 間接的인 經濟的 侵害를 받았으며, 안으로는 勢道政治가 점점 그 기반을 잃어가는 가운데 中央에서 地方에 이르기까지 官紀紊亂이 擴大되어 農民들은 集團的인 실력행사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안밖으로 社會的 矛盾이 쌓이자 위기의식 또한 고조되어 갔다. 19世紀 後半期는 지금까지 分離되어 作用하던 안밖의 社會矛盾이 서로 엉켜 결국 李朝社會를 崩壞시키는 과정이라 하겠다.⁸⁾

이러한 狀況을 政權基盤의 脆弱性, 19世紀 大陸의 國際情勢, 官僚紀綱의 紊亂 開

7) 上揭書, P.176.

8) 金雲泰外, 「韓國政治論」 (서울:백영사, 1984), P.142.

港(1876) 後 朝鮮의 政治的 狀況 등으로 나누어 論하고자 한다.

㉠ 政權基盤의 脆弱性

朝鮮王朝의 一般的인 特徵은 政治的으로는 家產官僚制의 絶對的 專制君主國家의 性格을 지니고 있었으며, 經濟的으로는 農本爲主의 封建主義國家이고, 社會的으로는 嚴格한 兩班 爲主의 階級社會였으며 思想的으로는 儒敎의 敎理가 支配하였고 外交的으로는 大陸을 崇拜하는 事大主義 思想을 취하는 社會였다.

李朝政治體制는 19 世紀 말엽 勢道政治에서 閔氏專制政治로 轉落하면서 대부분의 양반들은 政權에서 疏外되어 갔다.⁹⁾

閔氏專制政治는 儒敎的인 人材登用制度인 과거제의 원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른바 閔氏專制政治로 化해 갔으며 그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王權의 衰微를 초래하였다. 이제 王權은 양반들이 균형된 勢力을 基盤으로 그 安定을 다시 回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政權을 獨點하게 된 일부 양반세력에 억눌리게 된 것이 었다. 따라서 世襲王權과 王道理念에 바탕을 둔 正統성과 權威도 그 意味를 상실하는 한편 國民과 政治體制와의 一體感·統合性은 더욱 바라기 어려운 狀況이었다.¹⁰⁾ 이것이 大衆社會에 대한 無關心과 적대적인 態度는 勿論 東學의 發生基盤을 造成한 것이며 아울러 甲午農民蜂起의 原因이 된 것이다.

㉡ 19 世紀의 大陸의 情勢

19 世紀初에 英國은 印度를 根據로 하여 淸國으로 進出하면서 아편을 輸出함으로써 상당한 利得을 보았는데 淸國은 아편중독에 따르는 社會的 不安과 銀의 國外 流出을 막기 위하여 英國 상선이 廣東 入港을 금지 시켰다. 이에 커다란 타격을 받은 영국

9) 韓佑旆, 「東學亂에 起因에 關한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P.9.

10) 노태구, “東學의 政治思想,” 이현희 편, 上揭書, P.174.

은 外淸宣戰布告(1840)를 함으로서 阿片戰爭이 발발하여, 이 戰爭에서 淸國은 패배하여 굴욕적인 南京條約(1842)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뒤이어 애로우號事件(1856), 太平天國의 亂(1850~1864) 등으로 淸國은 西歐資本主義國家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은 朝鮮社會에 影響을 미쳐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특히 東學的 發生과 東學運動過程에 나타나는 斥洋思想은 西學에 對한 반발과 競爭되어진 大淸의 事態에 대한 憂心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ㄷ 官僚紀綱의 紊亂

朝鮮王朝의 人事制度인 科擧制度가 19世紀에 들어서면서 勢道政治와 연결되어 급속히 문란해지고 이에 따라 賣官賣職現象을 초래하였다. 이를테면 高宗年間(1863~1907)에는 閔氏만을 위한 戚試를 실시하는 일도 있었다.¹¹⁾

이러한 現象은 몰랑 무스니에르(Roland Mousnier)가 지적한 바 있는 農民暴動 제일의 禁忌事項인 「官僚의 비대화」¹²⁾를 초래했다는 점이 더욱 비극적이었다.

이와같은 賣官賣職의 風潮를 19世紀 朝鮮社會에 더욱더 부채질한 것은 大院君의 執政時(高宗2年) 경복궁 중건을 위한 損補錢 모집으로부터 발달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³⁾

賣官賣職 現象은 朝鮮時代의 俸祿制와 결부시켜 考察할 때 貪官汚吏라는 부패관리가 등장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朝鮮時代 官吏의 俸祿은 너무도 부족하여 벼슬아치들은 모두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으므로 사세부득히 法을 어기고 苛斂을 하였다. 그렇치 않으면 장차 살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¹⁴⁾ 따라서 이러한 過程에서 貪

11) 金允植, 「讀陰晴史」 (서울:국사편찬위원회, 1971), P.276.

12) Roland Mousnier, Peasant uprising in 17th century: France, Russia, and China (London: Harper & Row Pub. Inc, 1971), P.85.

申福龍, “東學思想의 時代의 背景,” 「學術誌」, 제 28 집, 건국대학교, 1984, P.179에서 再引用

13) 韓佑勛, 前揭書, P.23.

14) 申福龍, 前揭論文, P.179.

官汚吏가 發生하였고 이러한 貪官汚吏의 橫行에 直接的 被害를 입은 것은 農耕社會에서 볼 수 있는 土地를 매개로 하는 수탈이었다. 이러한 貪官汚吏들이 橫行은 특히 萬頃平野가 있는 전라도 지방에 더욱 극성스러웠는데, 이곳에 부임하는 方伯 守令들은 여기에 사는 農民들에게 穀倉地帶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림주구를 행하였으며, 農民들은 豐年이 크게 들면 오히려 수탈이 심했으니 豐年에 배고픈 農民들이었다.¹⁵⁾

이러한 관기문란에 따른 貪官汚吏들의 가림주구는 東學의 發生과 甲午農民蜂起에 直接的 背景을 이루었다.

㉔ 開港(1876) 後 朝鮮의 政治不安 개항과 더불어 朝鮮에 대한 淸日兩國의 政治的 간섭과 經濟勢力의 侵入은 종래부터 계승되어 오던 兩班官僚支配層의 對立으로 빚어진 政爭分布圖에 一大變化를 불러 일으키는 影響을 주었다.¹⁶⁾ 즉 그것이 이 兩國勢力에 결부되는 守舊派(親淸派)와 改化派(親日派)로 分裂함으로써 朝鮮 政局이 극히 복잡하고도 심각한 對立狀態에 빠지는 結果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兩派의 對立은 마침내 「壬午軍亂」(1882)과 「甲申政變」(1884)이 發生하여 淸국은 더욱 혼돈속으로 쌓여갔다.¹⁷⁾

이와같은 개항과 더불어 國內政治의 不安으로 여러 事件이 發生하였으나 당시의 執權層은 이러한 事態를 자기들의 政權維持의 方法으로 外勢에 依存하여 서슴없이 外勢의 힘으로 國內의 事態를 무마시키는 등 基本的으로 朝鮮이 갖고있는 問題를 도외시 하였던 것이다.

다. 思想的 背景

朝鮮後期の 思想界는 儒教, 佛敎, 道敎와 基督教思想이 풍미하여 思想的 혼돈속에

15) 申福龍, “實錄 全奉準,” 「月刊朝鮮」, 9月號, 1981, P.154.

16) 韓佑旻, “壬午軍亂때의 日本의 對韓政策에 關한 考察,”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제 10 집, 성균관대학교, P.169.

17) 韓佑旻, “甲申政變에 關한 考察,”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제 7 집, 성균관대학교, P.76.

휩쓸려 있었다.

당시 社會規範의 理念으로 삼았던 儒敎, 그중에서도 性理學(朱子學)은 中央執權的 封建國家의 權力維持에 適合한 治者階級의 學文이었다.

朝鮮後期의 官僚制는 儒敎思想에서 연유된 官尊民卑 및 階級思想을 토대로 在鄉的 地主的 性格을 띠고 發達하였으므로 自然적으로 농장의 토대위에 書院이 出現하고, 士林이 成立되어 그 勢力을 擴大하여 中央에 進出하여 國王의 信任을 얻어야했다.

이를 爲하여는 朱子學의 哲學的 研究보다 禮論이나 道德的인 面의 研究에 치우쳐 士林 組織間에 이러한 것에 關한 空理空談的 論爭을 일삼아 黨爭이 격화되어 結果적으로 儒敎는 大衆生活과 유리되고 말았다.¹⁸⁾

佛敎는 朝鮮의 國是인 崇儒政策에 의하여 萎縮된 나머지 寺田과 같은 國家로부터의 特혜가 없어지자 修道보다는 衣食에 위협을 느껴 궁중이나 官廳에서 행하는 祈福 佛供에 그 經濟力을 依存하여 오는 동안에 治病求福의 기도와 같은 個人救濟의 宗教로서 간신히 그 命脈을 유지하는 狀態였다.¹⁹⁾

또한 道敎도 朝鮮後期에는 政治的으로 疏外당한 양반의 隱遁思想이 甦트받침되어 세속화 되었다.

「儒道 佛道 累千年에 運이 다했던가」²⁰⁾

이와같은 儒·佛·道의 개존 종교가 빛을 잃고 침체되었어도 어떤 다른 종교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게 되자 재래의 巫敎가 活氣를 띠어 각종 流言蜚語와 터무니없는 豫言類까지 유포되어 思想界는 크게 混亂되었다.

이즈음 西歐로 부터 전래된 天主教가 쉽게 民衆에게 파고 들어가 朝鮮의 政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즉 支配階級層에서는 被害意識을 가지고 西敎라는 새로운 罪目을 만

18) 金昌杰, “동학의 민중교회이념 연구,” 「인하대학교 논문집」, 제 8 집, 1982. P.194.

19) 申福龍, 前揭論文, P.182.

20) 천도교경전, 용담유사, 「敎訓歌」.

들어 黨爭의 用具로 辛亥邪獄(1791) 등 天主教에 대한 박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항의와 通商을 要求하며 西歐資本主義 國家들이 자꾸 무력을 시위했는데 이것은 조선정부에 위기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이와같이 앞서 前述한 社會的 혼돈과 사상적 혼란은 신흥종교인 東學의 출현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宗教란 基本的으로 社會的 反應이기 때문이다.²¹⁾

2. 東學의 發生

신흥 宗教의 發生要件으로서는 첫째로는 比較的 長時間의 政治的 混亂을 겪게되며, 둘째로는 政治的 混亂에 뒤이어 어느 정도의 危機意識이 造成되며, 셋째로는 宗教的 指導者가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²²⁾

이와같은 條件은 1860年代 朝鮮社會가 겪었던 狀況과 부합되는 것으로 앞서 考察한 時代的 背景에서 알 수 있다.

신흥 宗教인 東學은 1860年 4월에 경상도 경주의 몰락양반 출신이었던 第一代 敎祖 水雲 崔濟愚(兒名은 福述이며 初名은 濟宣이었고 大覺한 후에는 濟愚라 고쳤음²³⁾)에 의해서 창시되었다. 東學은 儒·佛·仙 三敎뿐만 아니라 風水地理說·陰陽說·土着的인 民間信仰 등 잡다한 요소를 思想構成에 가미하고 있다.²⁴⁾ 崔濟愚가 스스로 儒·佛·仙의 三敎에 대하여 儒의 倫理, 佛의 覺性, 仙의 養氣를 각각 天道의 一部라 하고 또한 儒의 人倫大綱, 佛의 普濟民生, 仙의 淸淨自修를 天道의 三科라 하였다.²⁵⁾ 이것은 東學의 折衷主義的 性格을 잘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封建的 抑壓에서

21) 申福龍, 「東學思想과 甲午農民革命」 (서울: 평민사, 1985), P.78.

22) 申福龍, “실록 전봉준,” 「월간조선」, 1981. 9月號, P.155.

23) 申福龍, “東學의 창도와 전개과정,” 前揭論文, P.306.

24) 白種基, 「韓國 近代史 研究」 (서울: 백영사, 1981), P.97.

25) 李敦化, 「천도교 창건사」, 제1편, (서울: 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P.47.

신음하고 있던 농민이나 천민, 그리고 일부 불락양반들이 일정한 계급적 이해·욕망·要求를 반영하는 입장에서 호응할 수 있는 宗教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東學은 朝鮮王朝社會의 저변에서부터 王朝文化를 부정하는 혁신적인 民衆思想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庶民層에 호소할 수 있는 民間信仰的 言語도 表現된 宗教였고, 서민들 자신이 經世濟國의 主體로 승격되는 「輔國安民」의 社會思想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東學은 당시 國內에 侵透하고 있던 西學(天主教)에 의한 危機狀況을 양반 知識層이 獨占을 거의 되다시피했던 기성 종교인 儒教·佛敎·道敎로서는 구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斥倭洋」의 구호와 더불어 自國文明保存과 輔國安民意識에 바탕을 둔 民族的 저항종교로 구현되었던 것이다.

東學名稱의 由來는 西學(天主教)에 對立하는 表現이며, 東學 창시자인 崔濟愚는 「우리 또한 東方에서 태어나 東方에서 살고있다. 道는 天道라 할지언정 學은 곧 東學이다. 하물며 세계가 東西로 나뉘어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西를 東이라하고 東을 西로 읽어야 할까. 孔子는 魯나라에서 태어났는데도 鄒나라에서 敎學을 넓히었으므로 鄒魯의 風俗이 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우리의 道는 여기에서 받고 여기에서 넓히고 있는데 어찌하여 西學이라는 이름으로서 부를 수가 있겠는가」²⁶⁾라고 하였다. 요컨대 東學은 東方 즉 東國(朝鮮)의 民族的 立場에 서서 農民을 비롯한 민중들이 反侵略的 志向을 일정한 範圍內에서 반영하고 있다.

3. 東學의 中心思想

東學은 절대적인 유일신으로 한울님을 信仰하되, 한울님과 世界, 한울님과 人間의 關係는 오히려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하며, 儒敎中心의 東洋的인 封建體制, 兩班社會, 낡은 倫理를 전면 부정하고, 人乃天을 核心으로 民權體制, 平等社會, 새 倫理를 주장하고 革命的인 改革論을 主張하고, 天·人을 大道의 根源으로 誠·敬·信을 道의 본

26) 천도교경전, 동경대전, 논학문.

체로, 守心正氣를 修道의 요결 등으로 思想이 構成되어있다.

먼저 侍天主思想을 살펴보면, 侍天主라는 것은 天心如一을 말하는 것으로 종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天의 概念에 새로운 立論을 한 것인데 그 당시 朝鮮사람들은 天主라는 것이 人間社會와는 별개로 絶對最高의 主宰神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 즉 神이라 하면 人間과 地上萬物을 초월하여 별개의 靈的 絶對神이 存在하는 줄로 알았다. 그리하여 세상에 存在한 어떤 物體와의 사이에 어떤 關係가 있음을 인정치 않으며, 雨露風霜등 모든 自然法則의 現狀이 天主가 施行하는 것으로 認識하였다. 따라서 天主와 人間과도 靈的脈結이 없는 別個物로 생각하여 세상 사람들은 제멋대로 天命을 不觀하여 天理에 不順하여 서로 뜯고 빼앗아 非自然한 階級과 不道德한 行爲가 형성되어 혼탁한 人間社會를 만들고 말았다.

崔濟愚는 天과 人, 天과 物의 區分關係를 타파하고 人間至上主義를 高潮하여 人間과 萬有는 大宇宙 大生物의 表現으로 神의 現實을 顯現한 것이라 하여 위로 日月星辰으로부터 아래로 조수나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든 天主의 顯現이라고 주장하였다.²⁷⁾ 이 思想은 第二代教祖 崔時亨의 「吾心即汝心」으로 그리고 第三代教祖 孫秉熙는 人乃天思想으로 說明하고 있다. 이 侍天主思想은 당시 朝鮮封建社會의 階級的 身分制度를 부정하였다.

다음 後天開闢思想을 살펴보면, 東學의 教旨 즉 濟世教民, 保國安民, 布德天下, 億兆蒼生同歸一體, 地上天國 등을 표방하고 있는 그 자체가 당시 社會的 제반 모순과 混亂을 匡正하고 改革하자는데 그 의도가 있었으므로 後天開闢思想은 東學의 窮極的 目的이며 結果라 할 수 있다.²⁸⁾

崔濟愚는 現狀否定을 전제로 現實的 狀況을 極限的 危機로 意識하고 疾病的 狀況으로 看做하여 이를 교정하고 改革함으로써 新天地가 展開되리라고 믿었다.

27) 李攷洙, “東學의 韓國政治思想의 研究,” 「社會文化 研究」, 제 3 집, 대구대학교, 1984, P.120~121.

28) 全昌杰, “東學의 民중교화이념 연구,” 「인문과학」, 제 8 집, 인하대학교, 1982. P.9.

「是故 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²⁹⁾

「我東方 年年怪疾 人物傷害 아닐런가」³⁰⁾

이와같이 崔濟愚는 당시의 現狀을 社會疾病으로 보고 있는데, 그의 疾病說은 人間의 身體的 疾患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참다운 뜻은 개인의 정신적 결함과 社會의 失敗상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趙芝薰〉은 東學의 開闢思想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는데 「東學의 窮極의 思想은 地上天國建設의 現世主義 宗教인 것이다. 그들은 地上天國의 建設에 三大開闢을 前提한다. 첫째로 迷信, 偶像, 偏見, 利己等 個性의 害惡과 精神의 疾病의 退治인 精神開闢, 둘째로 民族은 全人類社會의 集團的 單位임으로 地上天國의 建設은 過程上 民族生活에서부터 改善된다는 民族開闢, 셋째로 個性과 民族의 開闢은 人類平和 相互扶助의 社會開闢에 이른다. 社會開闢은 곧 崔濟愚가 말하는 地上天國의 完成이다.」³¹⁾

여기서 東學의 開闢思想이 人間改革을 전제로 民族改革, 人類改革, 社會改革의 원대한 理想이 包含되어 있는 開拓과 創造의 革新思想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東學에 나타난 護國思想을 살펴보면, 東學에 나타난 民族主義的 護國思想은 西勢東漸에 대한 疑懼心과 大陸의 지나친 宗主國的 態度的 傲慢性에 대한 不快感 그리고 日本의 奸惡性에 대한 적대감 등 세가지 側面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西勢東漸에 대한 恐布心은 斥洋思想으로 나타났다.

「西洋 戰勝攻取 無事不成 而天下盡滅 亦不無唇亡之歎 輔國安民計 將安出」³²⁾

「소위 西學하는 사람 암만봐도 名人 없네. 西學이라 이름하고 내몸 拔薦하였던가」³³⁾

29) 천도교경전, 東經大典, 布德文.

30) 천도교경전, 龍潭遺詞, 勸學歌.

31) 趙芝薰, 「韓國文化史序說」, (서울: 탐구당, 1964), PP.127~128.

32) 천도교경전, 東經大典, 布德文.

33) 천도교경전, 龍潭遺詞, 安心歌.

위의 글들에서 西洋人들이 장차 朝鮮에 侵入할 것이라는 예견과 이에 대한 방비책에苦心했던 점을 볼 수 있으며 또한 西學에 대한 두려움을 西學自體를 卑下시켜 나타내 보이고 있다.

둘째는 日本의 奸惡性에 대한 적대감이 斥倭思想으로 表出되었다.

「崎驗하다 기험하다 我國運數 기험하다 개같은 倭賊놈아 너의 身命돌아보라. 너희 역시 下陸해서 무슨 恩德있었던고, …… 개같은 왜적놈이 前歲壬辰 왔다가서 ……내가 또한 신선되어 飛上天 한다해도 개같은 왜적놈을 한울님께 造化받아 一夜間에 멀하고 서……」³⁴⁾

위의 記錄에서 反日感情이 累代에 걸쳐 축적되어 폭발 직전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세째로는 大陸의 거만한 宗主國의 態度에 대한 不快感이 斥華思想으로 나타났다.

「大報壇에 맹서하고 漢夷원수 갇아 보세, 重修한 漢夷碑閣 헐고나니 草芥같고 붓고 나니 撲散일세」³⁵⁾ 라고 한 것에서 淸에 대한 反感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論述한 東學中心思想의 本質的 特徵은 人乃天思想을 기반으로한 人本主義와 平等主義, 開闢思想에서의 革新主義 그리고 護國思想에서의 民族主義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4) 천도교경전, 龍潭遺詞, 安心歌.

35) 천도교경전, 龍潭遺詞, 安心歌.

Ⅲ. 東學의 發展過程과 政治的 限界性

甲午農民蜂起와 東學과의 關係를 이해하려면 먼저 東學의 發展過程을 考察하여야 한다. 甲午農民蜂起는 東學이 發展된 狀態에서만 關聯性을 問題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本章에서는 먼저 東學의 發展過程을 먼저 살펴본 후, 그러한 發展過程에서 東學이 갖고 있는 問題點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東學의 發展過程

東學은 高宗 甲子年(1864) 3月 10日 教祖 崔濟愚가 左道惑民의 罪로 大丘에서 梟首된 후 朝鮮政府에서 탄압하는 宗教가 되었다. 그러나 崔濟愚의 뒤를 이어 第二代 教祖 崔時亨이 教祖의 자리에 오르면서 東學은 政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教勢는 무서운 속도로 擴大되어 갔다. 따라서 崔濟愚의 죽음으로부터 甲午農民蜂起에 이르기까지의 30여년 동안 發展過程이 계속된 것이다. 이러한 發展過程은 教祖伸冤運動과 東學 組織 擴大로 展開되었다. 이것을 각각 나누어 考察해 보고자 한다.

가. 教祖伸冤運動

教祖伸冤運動이라고 불리우는 事件이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李弼濟에 의한 辛未年(1871)의 起兵이었다. 李弼濟는 癸亥年(1863)에 東學에 入道하였으며 組織網을 가진 東學의 組織을 이용하여 伸冤運動이라는 이름아래 辛未年 以前에 鎭川, 晉川作變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여 政府의 指目을 받아 그 후 일찌기 東學接所를 設置한 바 있는 寧海에 잠복하였다.³⁶⁾ 李弼濟는 教祖死刑日인 1871年 3月 10日에 教祖伸冤의 名稱아래 東學의 組織網을 통하여 東學教徒들을 비밀리에 동원하여 寧海에서 起兵하고 8

36) 金義煥, 「우리나라 近代史論文」 (서울: 三協出版社, 1964), pp. 78~82.

月 2 日에는 보다 큰 規模로 聞慶에서 蜂起를 計劃하다가 실패하여 梟首刑을 받았다.³⁷⁾

辛未年 李弼濟亂에서는 蜂起의 指導者 李弼濟의 人物如何보다도 그 기반의 문제가 된다. 寧海起兵과 聞慶起兵 準備를 살펴 볼 때 지금까지 農民蜂起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양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寧海起兵은 東學組織의 連絡網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農民蜂起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광범위한 지역(경북일대)의 農民을 夜半을 기하여 동원해 寧海府使를 죽이고 官衙까지 一時 점령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李弼濟亂에서 東學組織이 큰 役割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李弼濟亂에서 東學 第二代教祖 崔時亨은 시기상조를 구실로 하여 武力蜂起에 반대하였으며, 이러한 崔時亨의 態度는 일련의 教祖伸冤運動과 甲午農民蜂起를 통하여 시종일관한 그의 態度였다. 그리고 그는 武力蜂起뿐만 아니라 내송정치운동에도 반대하였다.

다음은 1892年 11月 1日(陽. 12月 9日)에 發生했던 參禮集會를 살펴보면, 1891年 10月 22日(陰)에 趙秉式이 忠淸監司로 부임한 후 東學教徒에 대한 탄압이 가혹하였다. 여기에 東學教徒들은 종래 農民들의 民訴形態를 取하여 請願運動으로서의 教祖伸冤運動을 일으키게 되었다. 教祖伸冤運動이라 함은 그들의 上疏 가운데,

「甲子三月十日에 大邱에서 殉道케 하니 其至冤極通은 人靈이 淒絶이요 天地가 慘癘하다 可謂할지로다 吾等이 舍血歆泣 三十餘年에 先師의 至冤을 아직 未伸한지라」³⁸⁾ 한바와 같이 教祖의 左道惑民의 罪를 씻고 布德의 自由를 얻으려는 民訴運動이었던 것이다.

參禮集會前인 그 해 7月에 教主 崔時亨의 首弟子格에 해당되는 徐丙鶴은 徐仁周와 더불어 崔時亨에게 「방금 우리 道의 급무가 先師의 伸冤一事에 있다」³⁹⁾ 고 하여 伸冤運動을 일으킬 것을 力說하였으나 教主 崔時亨은 隱忍自重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 10月에 徐丙鶴·徐仁周은 獨團的으로 教徒를 公州에 集會시켜 忠淸監司 조병식에게 伸冤禁暴의 訴狀을 내었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이에 격분한 東

37) 李光淳, “東學의 顯道運動,” 李炫熙 편, 前揭書, PP. 255~260.

38) 吳知沐, 「東學史」(서울: 탐구당, 1974), PP. 75~77.

39) 李教化, 前揭書, 제 2권, P. 45.

學教徒들은 1892年 11月 1日(陰) 參禮에 集會하였는데, 이 당시 參禮에 모인 教徒의 數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正確한 記錄이 없고 다만 천도교측에서는 「수천 명」⁴⁰⁾ 이라고만 記錄되어 있으며 김윤식은 「무리 만여 명」⁴¹⁾ 이라고 記錄하고 있다. 이 聚會는 東學創設以來 처음보는 대집단의 공공연한 大示威였다. 이러한 東學教徒의 대집단적 시위하에 東學側에서는 강경한 내용의 訴狀을 전라감사 李耕植에게 제출하였다.⁴²⁾ 이 訴狀을 받은 李耕植은 訴를 題決하여 말하기를 「東學은 朝家에서 禁하는 바라 彝性을 既具하였거니와 어찌 正을 捨하고 異瑞에 就하여 스스로 犯하느뇨 更히 迷惑치 말라」⁴³⁾ 라 하였다. 이와같이 東學教徒의 伸冤訴에 대하여 전라관찰사는 東學이 朝家에서 禁하는 바라 하여 訴願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教徒들이 한 달이 넘도록 물러나지 않게되자 관찰사는 주막 주인들로 하여금 東學徒에게는 먹을 것을 팔지 못하도록 엄명함으로써 教徒들은 饑寒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헤어졌다.⁴⁴⁾ 단순한 伸冤이라는 側面에서 본다면 參禮의 모임은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성과에 관계없이 重要한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하여 東學運動思想 最初의 政治集會를 可能케 했다는 사실이다.⁴⁵⁾

1893年 2月 11日(陽, 3月 29日)에 있었던 서울 伏閣上疏運動을 살펴보면, 東學指導層은 參禮의 伸冤集會 結果 두 가지의 結論을 발견하였는데, 하나는 宗教集團으로서의 그들의 潛在力이었고, 둘째는 參禮伸冤과 같이 地方 道伯을 상대로 소청이란 부질없는 일이오, 서울로 올라가 王에게 直接 상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실이었다.

40) 上揭書, P. 46.

41) 金允植, 前揭書, P. 264.

42) 吳知泳, 前揭書, P. 71.

43) 李教化, 前揭書, 제 2 편, P. 48.

44) 金允植, 前揭書, P. 46.

「月餘不退 錦伯嚴飭店舍 不許賣飯 其黨見事 不諧 相牽引去」

45) 申福龍, 「東學思想과 甲午農民革命」 (서울: 평민사, 1985), P. 98.

이와 같은 結論에 이른 東學의 指導者 50여 명이⁴⁶⁾ 1893年 1월에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에 엮드려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王에게 直接 올리게 되었다.

「吾道는 東에서 受하여 東에서 布하는지라 어찌 可히 西로써 名하리요. 하니 此東學으로 得名한 바요 宗사한 바니 …… 先師의 至冤을 伸케 하며 臣等死命을 濟하여 주소서」⁴⁷⁾

그들의 疏는 參禮에서 그랬던 것처럼 伸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効果는 전에 비해 매우 큰 것이었다.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종교적 시위에 당황한 조정에서는 그들이 이토록 소요를 일으킨 데 대한 罪를 물어 전라관찰사 이경직과 경상관찰사 이헌영을 파직시키는 한편, 교도들에게는 각기 생업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있었을 뿐 伸冤에 대한 언질은 주지 않았다.⁴⁸⁾

서울 伏閣上疏運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그들의 집단행동 범위가 기호지방을 벗어나서 서울까지 올라와 伸冤運動을 展開하는 동안에 과거에 알지 못했던 朝鮮의 國際的 立場과 外國人들의 國內活動을 直接 目睹함으로써 그들의 視眼이 民族主義的인 노선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에 있다.⁴⁹⁾ 이러한 事實은 다음에 있을 報恩集會에서 그들의 구호가 「斥洋」「斥倭」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1893年 3月 11日(陽. 4月 26日)에 있었던 報恩集會를 살펴보면, 서울 伏閣上疏의 目的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이 大都所가 있는 報恩에 돌아왔을 때 東學 指導層의 行動은 전혀 다른 方向으로 흐르고 있었다. 1893年 3月 報恩장터(帳內里)에 모였을 때 그들의 窮極的 關心은 伸冤이 아니라 바로 國運의 問題로 바뀌었다. 그들은 兵營의 주위에 「斥洋」과 「斥倭」라 쓴 깃발과 각 소속의 接旗를 세우고

46) 前揭書, P.98.

47) 李敦化, 前揭書, 제 2권, PP.51~53.

48) 申福龍, 前揭書, P.99.

49) 金義煥, “동학농민운동사 연구,” 「부산여자대학 논문집」, 제 3집, 1975, PP.299~305.

군중집회에 들어갔는데,⁵⁰⁾ 이 당시에 모인 군중의 數는 2만7천 명 정도⁵¹⁾ 였으니 까 당시의 기동체제로는 대단한 勢力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東學教徒들이 총청관찰 사에 보낸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다.

「우리들이 비록 草野의 어리석은 백성들이나 오히려 先王의 法을 이어받고 이 나라의 國土에서 밭을 갈아 부모를 봉양하고 있으니 臣下와 백성된 직분에 귀천은 비록 다를망정 忠孝야 어찌 다르오, 원컨데 작은 忠誠이지만 나라에 바치고자 하나 구구한 下情을 上達할 길이 없으니 생각컨데 각하께서는 世家忠良으로 길이 國祿을 보전하고 나아가나 물러가나 근심이 忠君愛國의 정성에 있다는 것은 저희와 비할 바 아니리오 …… 저희들 수만 명이 죽기로써 힘을 같이하여 倭洋을 소탕하고 나라에 크게 보답하는 義理를 다하고자 하오니 願컨데 각하께서는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忠義의 선비와 官吏를 모집하여 다같이 國家를 돕기를 바라나이다.」⁵²⁾

아울러 教徒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通諭文」을 돌려 그들의 愛國心을 鼓吹하였다.

「방금 나라는 거꾸로 매달린 것과 같이 위급하되 그것을 풀 줄을 모르니 어찌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는가? …… 지금 우리 聖上은 純德仁柔하고 萬機를 總察하시되 안으로는 賢良의 佐가 없고 밖으로는 雄勇의 將이 없어 外賊이 틈을 타서 기회를 엿보아 切迫함이 朝夕에 있으니 엿드려 바라건대 모든 道儒은 一心으로 뜻을 같이하여 妖邪스러운 기운을 깨끗이 쓸어 버리고 宗社를 克服하여 다시 重光의 日月을 밝게 하는 것이 어찌 士君子의 忠孝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仁이란 生肉의 봄이요, 義란 收藏의 가을이라. 智仁이 비록 德이긴 하지만 勇이 아니면 達하지 못하나니 엿드려 바라건대 모든 君子는 本然의 義氣 克勵하여 大忠大功을 國家에 세우면 지극히 다행이겠노라.」⁵³⁾

50) 「聚語」, 東學亂記錄, (上), (서울:국사편찬위원회, 1971), PP.110~111.

51) 金允植, 前揭書, P.261.

52) 「聚語」, 前揭書, PP.108~109.

53) 「聚語」, 前揭書, PP.113~114.

결국 그들은 報恩集會를 계기로 하여 教祖伸冤이라는 宗教鬭爭으로부터 民族主義으로 변신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련의 集會들, 즉 辛末年 李弼濟亂, 參禮集會, 서울 伏閣上疏 그리고 報恩集會로 이어지는 일련의 宗教集會가 가지는 歷史的이고도 政治的 의미는 그것이 민중의 정치집단화 과정 (the process of mass politicizatin)⁵⁴⁾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나. 東學組織의 擴大過程

東學의 組織體系는 다른 종단뿐만 아니라 一般組織體系와도 다른 점이 많다. 獨特한 組織體系는 때에 따라 適應시켜 일사불란한 체계와 힘을 갖도록 했다. 그 결과 甲午農民蜂起에 있어서 커다란 役割을 할 수 있었다.

東學組織은 創設 3年만인 1862年 12월에 接主制가 實施되었는데 이는 東學組織의 시초로 13個所(慶州, 盈德, 寧海, 大邱, 清道, 京畿, 清河, 延日, 丹陽, 英陽, 新寧, 固城, 蔚山, 長鬐)에 接所⁵⁵⁾를 設置한 바 있었다. 1863年 7월에는 崔時亨이 教祖 崔濟愚로부터 北接大道主로 임명받아 宗教的 總轄과 各接과의 連絡을 맡아 보게 되었다.⁵⁶⁾ 그러나 教祖의 被刑後 이러한 東學組織은 互解되지 않을 수 없었다. 太白山, 小白山을 무대로 비밀리에 教脈을 유지하던 시기를 지나 開港후인 1878年 7월이 되면 「天道教創建史」에 「布德 19年 戊寅 7월에 神師(崔時亨) 接所를 劉時憲家에 定하시고 徒弟에게 開接의 文을 발하니 曰 吾道中에 開接이라 이름하는 것은 결코 儒門의 文士 相會하여 詩賦를 戲弄하는 例가 아니오 大神師 在生時에 있어 氣數의 迭代盛衰하는 理를 미루어 이미 開接의 規例를 말한 바 있었던 것이니 그러므로 내 이제 接을 開하고 道를 講하는 것은 전혀 先生의 뜻을 이음이라하시니 대개

54) 金昌洙, 前揭書, P.344.

55) 書堂·學舍에서 開講하는 것을 接이라 함.

56) 金義煥, 前揭論文, P.295.

開接이라 함은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各地 道人이 集會하고 그 期間內에 진리를 研究한 뒤에 기간이 종료하면 接을 罷하는 것이니 開接의 制度는 이에서 嚆矢하였다.⁵⁷⁾ 라 하여 教祖被刑後 接所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는 하나 이는 항구적인 教政機關이 아니고 東學講道の 臨時集會로 끝나면 罷接하는 것이다. 그 후 三南 및 강원도일대 각지에 오늘날의 教制區 즉 「包制」가 실시되었다. 各包에는 包主를 두어 통솔케 하였는데 金庠基教授는 이 包制에 대하여 「包主를 接主라고도 하는 것은 包가 接으로부터 발달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接은 教化的인 것이며 包는 教政的 의미인 듯하다.⁵⁸⁾」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甲午農民蜂起때 거사하기 위해 東學教徒들을 동원하는 것을 起包라고 한 것으로 보아 妥當스럽다고 할 수 있다.

1884年 12月에는 各包의 사무처리를 위해 소위 「六任制」가 設定되었다.⁵⁹⁾ 六任制라 함은 教長·教授·都執·大正·中正의 六任을 말하는 것으로서, 教長에는 건실하고 德望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教授는 성심으로 道를 닦아 가히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都執은 위풍이 있고 紀綱이 밝고 經界를 아는 사람으로 하였고, 執綱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 판단을 내릴 사람으로 삼았고, 大正은 공평하며 無私하고 근후한 사람으로 하였으며, 中正은 直言할 수 있는 강직한 사람으로 정하여 教徒들의 指導者로서 모범이 되게 하였다.⁶⁰⁾ 또한 1885년에는 第2代教祖 崔時亨은 忠淸道 報恩郡 俗離面 帳內에 東學의 本據(北接)를 두고 各地에 積極的으로 包組織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東學組織은 1894年까지는 경상, 충청, 전라, 강원, 경기도를 중심으로 全國 各地에 퍼졌다. 그리하여 1893年 報恩集會에서는 約 2萬名의 東學教徒를 結集시킬 수 있었다.⁶¹⁾

57) 李敦化, 前掲書, PP.25~26.

58) 金庠基, 「동학과 동학난」 (서울:대성출판사, 1947), P.56.

59) 金義煥, 前掲論文, P.295.

60) 「大世界百科事典」, 종교편 (서울:태극출판사, 1977).

61) 白種基, 前掲書, P.215.

다음은 東學組織이 갖고 있는 특성을 現代 社會心理學의 集團凝集力, 集團目標, 集團移動, 집단구조 등으로 關聯시켜 考察해보면, 첫째로, 東學組織은 集團凝集力을 強力하게 구축했다는 사실이다. 集團凝集力 強化條件⁶²⁾에 비추어 東學組織의 集團凝集力을 檢討할 때 東學組織이 지닌 비밀결사적인 강인한 생명력과 종교적 심성에서 배태되는 집단성원의 정서적 안정감 등이 있으며, 東學教義의 後天開闢이라는 希望과 피지배계급 집단성원이 숙명적으로 겪어온 불행한 生存條件으로부터 일어나는 同類意識과 이해의 공유, 崔時亨에 의해 창안된 宗教儀式(年 4회의 祈天式과 崔濟愚의 覺道日, 탄일 등에 거행되는 享禮 등)의 시행, 官을 비롯한 양반 토호 등 東學을 항시 위협 탄압하는 공통의 적이 존재 등은 凝集力을 強化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로 集團目標(Group Goal)의 側面에서 볼 때 東學의 集團目標인 동시에 集團規範이 된다. 특히 1883년에 崔時亨이 각包에 반포한 通諭文,

- 一. 忠君上
- 一. 孝父母
- 一. 隆師長
- 一. 睦兄弟
- 一. 和夫婦
- 一. 信朋友
- 一. 交隣里
- 一. 修身齊家爲先
- 一. 侍人接物唯敬⁶³⁾



62) 高永復, 「現代社會心理學」(서울: 法文社, 1974), P.164.

집단응집력 강화조건으로 ① 보호와 안전같은 공통의 개인적 욕구가 충족되고

② 대인관계에 있어 정서적 유대가 우세하고 이상이나 이해를 공유하며

③ 평등과 공평성이 보장되고 ④ 상징적 집단의례 활동이 있고

⑤ 집단외부에 공통의 적이 존재할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63) 천도교중앙총부 편, 「천도교백년약사」(서울: 미래문화사, 1981), P.145.

와 1888年 일반부녀를 비롯하여 各包에 공표한 內修道文 6個項,

一. 집안 모든 사람을 한을같이 恭敬하라. 며느리를 사랑하라. 牛馬六畜을 虐待하지 말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한을님이 怒하시나니라.

一. 朝夕 飯米를 낼 때에 한을님께 心告하라. 청결한 물을 길어 飲食을 청결케 하라.

一. 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말라. 흘린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痰이나 鼻汁을 아무데나 마하지 말라. 萬一 길이어든 반드시 물으라. 그러면 한을님이 감응하시나니라.

一. 一切 모든 사람을 한을로 認定하라. 손님이 오거든 한을님이 오셨다고 하고 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는 한을님을 치는 것이다.

一. 孕胎日잇거든 몸을 더욱 조심하되 아무것이나 함부로 먹지 말라. 모든 일에 胎兒를 위하여 조심하라.

一. 다른 사람을 是非하지 말라. 이는 한을님을 是非하는 것이니라. 무엇이든 貪하지 말라. 다만 근면하라.⁶⁴⁾

등은 집단목표인 동시에 集團規範이 된다.

세째로, 집단이동(Group Locomotim = Synergy)⁶⁵⁾의 관점에서 볼 때 東學組織의 모든 에너지는 初期에는 官의 박해로부터 잔명을 유지하는데 집중되었고, 教祖伸冤運動이 本格化된 1890年代 초반까지는 布德과 교세 확장에 소비되었다.

네째로 집단구조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 東學의 接, 包, 六任制와 같은 組織單位는 커뮤니케이션 통로인 동시에 역할 분화구조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東學의 教祖伸冤運動과 東學組織의 擴大過程을 考察하였다. 東學은 教祖

64) 李敦化, 前揭書, PP. 40~41.

65) 高永復, 前揭書, P. 121. Synergy 라는 용어는 Catell 이 집단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energy 의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만든 것이고, Lewin 은 이를 집단이동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伸冤運動을 통하여 東學의 組織化, 集團化 過程을 거치면서, 宗教的 要求 以外에 政治的 要求와 결합⁶⁶⁾ 하게 되었다.

2. 政治的 限界性

東學은 教祖伸冤運動이라는 宗教運動을 통하여 發展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은 종교적 目的 즉 教祖伸冤이라는 宗教的 標識을 위한 과정이었다. 따라서 東學은 民族의 內外의 危機속에서 列強의 침략에 반대하면서 封建的 身分制度에 의한 속박에 반대하는 농민을 주체로 하는 民衆의 階級的 要求를 一定한 範圍內에서 반영하는 進步的 思想과 東學의 커다란 組織은 갖고 있었으나 政治的 측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本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體制構想의 觀念性과 政治機能의 缺如라는 측면에서 考察하고자 한다.



가. 體制構想의 觀念性

東學은 天運循環에 의한 後天開闢思想에 根據를 두고 東學의 目標인 地上天國을 構築하려는 未來像을 제시하였고 이 미래상을 통하여 썩은 王朝의 政治的 矛盾과 支配階級的의 極甚한 榨取 등 現實을 批判하고 體制를 부정하였다. 東學의 目標인 地上天國은, 「一. 地上天國에서는 누구나가 長生不死한다. 여기에서 長生不死라 함은 肉身의 長生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영혼의 불멸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의 모든 生活이 社會的으로 有機長生하는것, 즉 社會라고 하는 大我が 不生不滅하는 것을 의미한다.

一. 地上天國의 生活은 德治生活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權力이 없으며 계급의 대립이나 귀천의 차별 등이 없으며 인간의 상부상조의 德性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66) 報恩集會(1893.3.11)에서는 「교조신원」 이외도 「斥倭」, 「斥洋」, 이라는 구호가 등장한다. 이는 종교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결합한다고 볼 수 있다.

一. 의식주의 부자유와 질병, 재앙과 같은 자연적 압박을 극복한 상태에서의 삶을 의미한다.]⁶⁷⁾

이와같이 상상력을 다하여 만든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東學의 目標인 地上天國은 統一的, 集團的 政治社會의 未來像이 될 수 없었다.

또한 東學이 주장하는 道德至上主義를 살펴보면,

「道成德立하는 法은

한 가지는 정성이요

한 가지는 사람이라」⁶⁸⁾

「부대부대 갈지 말고

誠敬二字 지켜내어

차차 차차 닦아내면

無極大道 아닐런가

時乎時乎 그때 오면

道成德立 아닐런가」⁶⁹⁾

라고 한 것은 東學의 教理에 의하여 社會의 德化가 이루어 진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道德至上主義는 現實에 對하여 意識的으로 計劃的으로 作用하는 實踐的 行爲를 부정함으로써 東學을 더욱 觀念化하고 있는 것이다.⁷⁰⁾

67) 李敦化, 「水雲心法講義」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1968), P. 102.

68) 천도교경전, 龍潭遺詞, 教訓歌.

69) 천도교경전, 龍潭遺詞, 道修詞.

70) 曹佐鎭, “한말호국사상과 민족의 자강운동,” 「人文科學」, 제 9집, 성균관대학교, P. 134.

「환상」⁷¹⁾과 「科學」중에 어느것이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써 보다 効果的인가는 별개의 問題로 치더라도 東學 目標인 地上天國은 現實的 狀況으로는 거의 不可能한 환상에 가까운 것이다.

나. 政治機能의 缺如

東學에는 體制構想의 觀念性보다 더욱 치명적인 內在的 制約이 있는데 그것은 “하는 것 없이 조화하다.” 즉 無爲而化思想이 내포된 政治機能의 缺如이다. 東學의 無爲而化思想은 道敎의 陰陽五行說에는 陰陽의 相互轉換, 五行의 相成相剋에 의한 自然成長의 原理⁷²⁾인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세속적 관심과 정열의 拋棄을 要求함으로써 東學을 安心立命⁷³⁾을 구하는 自己球濟의 宗教로 만드는 동시에 일체의 人爲的 노력을 부정함으로써 東學은 政治的, 社會的 實踐과는 거리가 먼 종교로 된 것이다. 말하자면 東學은 현실의 극복을 要求하면서도 그것이 無爲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現實克服의 길은 安心立命에 찾고 積極的 努力에 의하여 克服하려 하지 않았다.⁷⁴⁾

이러한 東學은 자연히 民衆과 결부되는 思想的 기반을 가지면서도 民衆을 運動에 너지로 전환하는 지도원리를 가질 수 없었고 현실타개를 위해서 일어난 民亂의 主體인 農民과의 사이에 間隔이 생기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東學이 갖고있는 政治機能의 缺如是 政治이데올로기의 特徵⁷⁵⁾ 가운데

71) 香内三郎, 日高六郎, “정치적 미래도의 발전,” 「근대일본사상사 강좌」, PP.225~226. 金榮作, “東學思想과 農民蜂起” 노태구 편, 前掲書, P.84에서 引用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식속에서 길러지는 미래도는 유럽의 天年王國이나 동양의 極樂淨土등과 같이 멀고 환상적인 것을 한쪽의 極이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合理的, 科學的인 현상분석에 바탕하여 세워지는 計劃的 프로그램, 政策 등을 그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72) 白種基, “동학사상의 형성과 전개 및 동학난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 14집, 성균관대학교, 1981, P.85.

73) 上掲論文, P.69. 安心→正氣→率性→受教→化出이라는 道敎의 萬物生成原理

74) 曹佐鎭, 前掲論文, P.135.

75) L.P. 바라다트, 신봉룡外 역; 「현대정치사상」 (서울: 평민사, 1984), PP.35~42 參照

行動指向의 性格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련의 東學宗教運動에 對하여 第2代 教祖 崔時亨의 態度⁷⁶⁾와 甲午農民一次蜂起時 및 東學 上位幹部들이 있는 北接의 指導者들은 全庵準을 비롯한 南接의 指導者들을 「國家의 역적이요 斯門의 亂賊」⁷⁷⁾이라고 規定하는데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76) 宋種基, 前掲論文, PP.87~90.

77) 申福龍, “實錄 全庵準,” 前掲書, PP.87~90.

IV. 東學과 甲午農民蜂起

前章에서 東學이 일련의 教祖伸冤運動이라는 宗教的 運動過程을 통하여 東學이 發達하는 過程을 考察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성장한 東學과 1894에 일어난 甲午農民蜂起와의 어떤 關係가 있나 하는 問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먼저 甲午農民蜂起의 展開過程을 考察한 다음에 甲午農民蜂起에 나타난 東學과의 關係를 考察하고자 한다.

1. 甲午農民蜂起의 展開過程

가. 甲午農民蜂起의 原因

甲午農民蜂起의 直接的 原因이 된 것은 古阜民亂이었다. 古阜民亂은 당시 朝鮮社會에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民亂의 한 形態로서 反封建的 性質을 띤 民亂중에 하나였다.⁷⁸⁾

古阜民亂은 古阜郡守 趙秉甲이 農民들에 對한 수탈로 비롯되었는데 그가 수탈한 내용을 살펴보면,

問： 昨年三月間，於古阜等地都聚民衆云，有何事緣而然乎，

供： 其時古阜倅額外苛斂幾萬兩，放民心冤恨而有此舉

問： 雖日貪官汚吏，名色必有然後事，詳言之，

供： 今不可盡言其細目，而略告其槩，

一. 築狀民狀下，以勒政傳令民間，上畚則一斗落收斗稅，下畚則一斗落收一斗稅，都合租七百餘兩，陳荒地許其百姓耕食，自官家給文券，不爲徵稅云，及其秋收時，勒收事，

78) 1862~1894년까지 69 곳에서 亂이 發生하였다. 김용섭, 前揭書, P.157. 參照

- 一. 勒奪富民錢葉二萬餘兩,
- 一. 其父曾經泰仁倅放, 爲其父建造碑閣云, 勒欽錢千餘兩,
- 一. 大同米民間徵收, 以精白米十六斗式準價收斂, 上納則質鹿米, 利條沒食事, 此外許多條件不能盡爲記得,

問: 今所告中之二萬餘兩勒奪錢, 行以何目乎,

供: 以不孝不睦淫行及雜技等事, 構成罪目而行矣,

問: 此外古阜倅行何等事耶,

供: 今所陳事件, 皆民間貪虐事, 而築時勒斫他山數百年邱木, 築湫役之民丁, 不給一錢勒役矣⁷⁹⁾

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築湫라든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碑閣을 세운다고 주민들을 苛斂誅求했고, 大同米를 통한 중간착복, 부당한 노동의 강요, 고부의 부호들을 수탈 등을 하였다.

이러한 狀況에서 全瑋準과 마을 住民들은 1893年 12月, 1894年 1月에 2次에 걸쳐 郡守 趙秉甲에게 陳情을 하였으나 구금되거나, 또는 쫓아냄으로써 아무런 效果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平和的인 方法으로서는 도저히 그들의 바램을 이룰 수 없자 古阜郡民들은 무력적인 수단인 民亂을 통해 그들의 뜻을 이루려고 計劃하는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 一. 古阜城을 격파하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할 事
- 一. 軍器倉과 火藥庫를 점령할 事
- 一. 郡守에게 아첨하여 人民을 侵漁한 貪吏를 懲戒할 事
- 一. 全州城을 함락하고 京師로 직행할 事⁸⁰⁾

1894年 2月 15日 이른 아침에 全瑋準과 農民 一千餘名은 古阜衙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열어 무장을 갖추고, 그들의 怨府인 萬湫石을 헐어버리려고 했으나 추위와 얼

79) 全瑋準供草, 「東學亂記錄」(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1).

80) 「少跡通文」, 東亞日報, 1970年 1月 7日字.

음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심미산(현재의 扶安郡 白山面 해발 47.4 미터)에 있는 4천섬의 쌀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古阜 郡守 趙秉甲이 전주로 도망하여 이 事件은 이것으로 끝났다.⁸¹⁾

이 古阜民亂은 東學과 거의 關係가 없는데 이러한 사실은 전봉준이 거병하였을 당시에 教主인 崔時亨도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고 따라서 이에 호응해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⁸²⁾ 全瑋準 供草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問：古阜起包時 東學多乎 冤民多乎

供：起包時 冤民東學雖合 東學少 而冤民多⁸³⁾

亂의 구성분자가 거의 冤民이었고 東學教徒는 소수였으며 全瑋準도 教祖의 伸冤이나 東學교리에 언급이 없었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 甲午農民蜂起의 發生과 展開

古阜民亂이 지나간 후 趙秉甲은 파면되고 신임군수 朴源明이 부임하여⁸⁴⁾ 善治를 베프으로써 상처는 그 상처에서 아무는 것 같았다. 그러나 古阜民亂의 按察使로 派遣된 李容泰로⁸⁵⁾ 말미암아 事件은 다시 격동의 속으로 몰아 넣었다. 按察使 이용태가 한 행동을 살펴보면, 「군중들이 해산하고 10일도 못되어 按察使 이용태는 역졸 8백명을 거느리고 고부로 들이닥쳐 새로 부임한 군수 朴源明에게 民亂의 주모자를 찾아 내라고 危脅하며 역졸을 고부군내에 풀어 마을을 뒤지고 婦女者를 強淫하고 백성을 약탈하며, 백성들을 마구 구타하고 고기 꿔듯 사람을 엮어갔다」⁸⁶⁾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事件處理를 根本적으로 잘못 했는데,

81) 張奉善, 「全瑋準實記」(井邑：履露齋, 1936), P.382.

82) 李敦化, 前揭書, P.51.

83) 全瑋準 供草

84) 高宗實錄, 甲午(1894) 2月 15日 字

85) 高宗實錄, 甲午(1894) 2月 15日 字

86) 「東徒問辨」, 前揭書, P.157.

問：散落後 因何事更起包乎

供：其後長興府使 李容泰 以按覈使來本邑 起包人民 通稱以東學 列名捕捉 燒灰其家
舍 無當者 則捕其妻子 而行殺戮 故更爲包⁸⁷⁾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全庵準이가 起包한 이유는 按覈使 이용태의 만행에
있는 것이다.

이제 고부군민들은 다시 한번 무력으로써 항쟁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번의 경우
는 지난번 古阜民亂의 境遇와 달리 보다 강한 무장이 必要해 全庵準은 茂長의 東學
教徒들에게 막강한 影響을 끼치고 있는 孫化中에게 다시 한 번 가세해 줄 것을 부탁
했고 태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金開南에게도 같은 것을 부탁했다.⁸⁸⁾

이들은 거사일자를 1894年 3月 21日로 정하였다. 굳이 이날을 잡은 것은 이날이
教主 崔時亨의 탄생일이었기 때문이었다.⁸⁹⁾ 거사 장소는 지난번의 白山으로 잡았는
데 이곳은 군량이 豊富하고 古阜에 자리잡고 있는 이용태軍을 끌어내어 요격하기에
알맞은 전략적 요충이었기 때문이다. 白山에 모인 甲午農民蜂起軍은 軍事를 二隊로
나누어 扶安과 泰仁으로 진격하여 말목장터에서 一泊한 다음 일부는 그들의 怨部인
관석보를 헐어버리고, 郡廳을 습격하여 죄수를 석방시키고 무기고를 파괴하여 무기를
꺼내 가지고 황토재의 동남쪽에 매복하였다. 이 황토재에서 관군과 충돌하였는데 관군
은 패하여 물러났다. 관군이 패하자 朝鮮政府는 招討使 홍계훈을 보내어 이를 막으
려고 했으나 黃龍川 戰鬪에서 또 다시 패하고 甲午農民蜂起軍은 4月 27日 全州城을
점령하였다.⁹⁰⁾ 甲午農民蜂起軍이 全州城을 점령하자 朝鮮政府와 협상이 이루어져 18
94年 5月 5日과 6월에 협상이 타결되어 甲午農民蜂起軍은 全州城에서 철병하여 각
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87) 全庵準供草, 前揭書.

88) 吳知泳, 前揭書, PP.111~112.

89) 崔玄植, 『甲午東學革命史』(서울:금강출판사, 1980), P.25.

90) 吳知泳, 前揭書, P.123.

이때 甲午農民蜂起軍이 全州城에서 철병하는 條件으로 제시한 條件으로서 弊政改革 13 箇條⁹¹⁾ 弊政改革 14 箇條⁹²⁾ 弊政改革 25 箇條⁹³⁾ 등을 내세웠다.

全州和約이 成立될 즈음 1894 年 5 月 1 日에 朝鮮政府는 淸國에 군대를 要請했고 이에 따라 葉志超와 聶士成의 指揮 아래 陸戰隊 1,500 名이 아산만에 上陸하였다.⁹⁴⁾

이러한 일은 天津條約 第 3 條⁹⁵⁾ 에 의해서 日本으로 하여금 1894 年 6 月 12 日부터 14 일까지 10,000 名이 兵力을 인천에 上陸시켰다.⁹⁶⁾

이러한 狀況에서 全瑒準과 金開南·崔時亨 등이 參禮에서 만나 主戰이나 和戰이나 회의를 가졌다. 결국 主戰論쪽으로 택하여 재차 起兵을 하였는데 이 때는 東學北接 이 이에 參與했고 教主 崔時亨은 이에 반대해 원주로 떠나갔다.⁹⁷⁾

재차 起兵한 甲午農民蜂起軍은 官軍과 日本軍의 연합군에 패하여 甲午農民蜂起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2.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와의 關係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와의 關係를 세 가지 觀點으로⁹⁸⁾ 區分하여 考察해 볼 수 있는데,

첫째, 甲午農民蜂起에 있어서 東學의 宗教的 役割을 過大評價하여 甲午農民蜂起를 단순한 東學의 宗教運動 내지 宗教戰爭으로 評價하는 境遇와, 東學思想(教理), 東學教團과 農民蜂起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東學思想은 甲午農民蜂起의 指導理念이었고, 甲午農民蜂起는 東學教團의 社會運動으로 把握하는 관점,

91) 鄭 喬, 「大韓季年史」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1), P.86.

92) 金允植, 前掲書, PP.323~333.

93) 上掲書, PP.323~325.

94) William E. Griffis, 「은자의 나라 한국」, 신복룡 역 (서울: 평민사, 1985), PP.585~587.

95) 天津條約 第 3 條: 장래 조선에 만일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中·日 兩國 혹은 一國이 과병을 要할 때에는 우선 상호 行文을 知照할 것이다.

96) 申福龍, 前掲書, P.133.

97) 上掲書, P.135.

98)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에 대한 學界의 연구동향은 대체로 3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本 論文도 그것을 參照했음.

둘째로, 甲午農民蜂起의 展開過程에 있어서 東學思想 및 東學教團의 役割을 과소평가하여 東學을 甲午農民蜂起의 宗教的 외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甲午農民蜂起를 朝鮮封建社會의 해체과정으로서 그 이전의 農民蜂起의 연속선상에서 把握함으로써 基本的으로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의 內在的 關聯性을 부정하고 甲午農民蜂起를 農民戰爭으로 볼 수 있는 관점,

세째로, 甲午農民蜂起의 指導理念으로서 東學思想과의 關係는 直接 關聯이 없으나, 東學思想이 現實否定的 性格을 지녔기 때문에 甲午農民蜂起의 指導理念으로서 現實化되었다고 보고, 東學教團의 組織이 甲午農民蜂起의 核心指導體가 되었다고 보는 관점으로 區分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 관점을 검토해 보면,

첫째로 주목되는 것은 첫째의 관점인 甲午農民蜂起를 宗教運動 내지 東學教團의 社會運動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東學教團의 成長이라는 教團의立場을 우선하고 있으며, 앞서 第II章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東學思想에는 體制構想의 觀念性과 政治的 機能의 缺如로 말미암아 政治·社會指導原理가 될 수 없으며, 또한 甲午農民蜂起에서 주장된 內容을 살펴봐도 이제까지 東學教團이 바라던 教祖伸冤이라는 目的이 사라지고 反封建的 性格이 내용으로 되어있다. 1894年 5월에 甲午農民軍에 의해서 만들어진 弊政改革 12個條를 살펴보면,

- 一. 道人和 政府와 사이에는 宿嫌을 蕩滌하고 庶政을 協力할 事
- 一. 貪官汚吏는 그 罪目을 查得하여 엄징할 事
- 一. 橫暴한 富豪輩는 엄징할 事
- 一. 不良한 儒林과 兩班輩는 懲習할 事
- 一. 奴婢 文書는 소각할 事
- 一. 七般賤人의 待遇는 改善하고 白丁頭上에 疇양립은 脫去할 事
- 一. 青春寡婦는 改嫁를 許할 事

- 一. 無名 雜稅는 一并 勿施할 事
- 一. 官吏 採用은 地閥을 타과하고 人材를 登用할 事
- 一. 日과 奸通하는 者는 엄징할 事
- 一. 公私債를 勿論하고 기왕의 것은 一并 勿施할 事
- 一. 土地는 平物으로 分作케 할 事⁹⁹⁾

따라서 위와 같이 주장하는 甲午農民蜂起를 단순히 宗教的 次元에서 宗教運動으로 把握하는 것은 說得力이 없는 것이다.

둘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全瑋準이 東學教徒가 아니냐, 아니면 東學教徒였던가 하는 의문이다. 우선 全瑋準이 東學教徒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申福龍教授의 견해를 살펴보면, 그는 「月刊 朝鮮」(1981年 9月號)에서,

一. 全瑋準의 동지들이 모두 東學徒들이었다고 해서 全瑋準마저도 東學徒였으리라는 오해된 推論을 낳아다는 것.

一. 자신(全瑋準)이 東學을 좋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東學을 남에게 가르친 바도 없고 스스로 東學의 魁首라고 稱한 바도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

一. 그는 第1次 심문에서 자신의 직업을 선비(以上爲業)라고 대답했을 뿐 東學과 關聯하여 직업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一. 東學을 믿으면 무슨 利益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東學은 믿어도 별로 利得이 되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는 것.

一. 그가 1894年 1월에 처음으로 擧兵하여 全州城을 물러날 때까지 그의 어느 직함에도 東學이라는 글자는 나오지 않으며 그가 쓴 많은 檄文과 幣政改革案 그리고 訴請書에도 東學을 비호하거나 그 당시에 東學教徒들 사이에 유행하던 教祖伸冤에 관한 귀절이 나오지 않으며, 教理에 對한 說明이나 찬양도 없었다는 것.

99) 吳知泳, 前揭書, PP.126~127.

一. 그가 東學을 믿었다는 사실조차도 의심스러운데 東學徒가 아닌 그가 接主였다는 것은 더 큰 의문을 낳는다는 것.

一. 全瑛準은 宗教的 의미로서의 接主가 하는 일을 評價함에 있어서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과소평가 하는 것.¹⁰⁰⁾

등을 주장하면서 全瑛準이 東學教徒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後世史家들의 曲筆에 의해서 東學徒로 規定」¹⁰¹⁾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金昌洙教授는 반박하면서 다음의 資料를 들어 全瑛準이 東學徒라고 주장하고 있다.

全瑛準 供草에

「問：汝住接古阜時 不行教東學乎

供：矣身訓導 如干童蒙 無東學行教之事」¹⁰²⁾

에서 金昌洙教授는 「住接」이란 글귀를 「接主로 있을 때」라는 뜻으로 풀어 그가 接主였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東學是守心敬天之道, 故酷好也」¹⁰³⁾ 에서 「酷好」라는 글귀를 「단순히 몹시 좋아한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信仰했다고 보아야 했으며」¹⁰⁴⁾ 라는 뜻으로 풀어 東學教徒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住接」이란 말을 辭典에서 찾아보면 「住接: 한 때 머물러서 살고 있음」¹⁰⁵⁾ 라고 뜻하고 있다. 따라서 「汝住接古阜時……」라는 대목은 「네가 古阜의 接主로 있을 때……」라고 해석되지 않고 「네가 古阜에 머물러 살 때……」라고 해석되어 金昌洙教授의 견해는 잘못 되었고 또한 「酷好」의 뜻을 믿음과 關聯시키는 것은 마치 「A는 B이다」라고 해서 「B는 A이다」라는 論理가 반드시 成立

100) 申福龍, “實錄 全瑛準,” 前揭書, PP.180~184.

101) 上揭書, P.93.

102) 金容燮, 前揭書, P.172.

103) 全瑛準供草, 「東學亂 記錄」(서울:국사편찬위원회, 1971).

104) 金昌洙, “全瑛準과 東學革命,” 前揭書, P.41.

105) 張三植 편, 「大漢韓辭典」(서울:進覽書館, 1981), P.74.

되는 것은 아니므로 金昌洙教授의 주장은 說得力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申福龍教授가 주장한 「全瑋準은 東學教徒가 아니다」라는 견해가 옳은 것이 된다.

따라서 全瑋準이 東學教徒가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는 甲午農民蜂起의 性格을 究明함과 깊은 關聯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와의 關係 세번째 견해에서, 東學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甲午農民蜂起의 지도원리로서의 東學思想(教理)과의 關聯은 東學思想이 지닌 現實否定的 性格이 있었다고 하나, 그렇다면 觀念的인 性格이 어떻게 克服되어 實踐的 社會革命運動으로 發展할 수 있었던가의 問題는 아직 分明히 밝혀져 있지 못하다. 또한 東學教團의 組織이 甲午農民蜂起運動의 核心指導體 되었다는 점은 問題點이 있다. 왜냐하면 全瑋準이 東學教徒가 아니며(앞에서 考察했음), 甲午農民蜂起 과정에서 東學指導者들이 있는 北接에서는 全瑋準과 南接의 指導者들을 가르켜 「國家의 役적이요 斯門의 亂賊이라고 規定하고 이들에 대한 토벌군을 조직하자는 논의까지 나오게 되었다」¹⁰⁶⁾는 記錄으로 보아 이 觀點은 說得力이 없다.

以上으로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와 關係에 對한 세가지 觀點을 세우고 이를 檢討하였는데, 要約하면 東學思想은 甲午農民蜂起의 指導理念이 될 수 없었으며, 東學教團이 甲午農民蜂起에 核心的 指導體의 役割을 認定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두번째 觀點이 옳다고 할 수 있다.

106) 吳知泳, 前揭書, P.136.

Ⅳ. 結 論

19世紀 朝鮮社會의 時代的 狀況은 과도기적 性格을 띠고 있었다. 中世에서 近代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社會의 모든 분야는 混亂과 矛盾을 초래하고 이러한 狀況을 解決하기 위한 것으로는 기존의 제도와 思想으로는 克服할 수 없는 限界에 도달하여 있었다. 이러한 時代的 狀況에 부응하여 宗教的으로는 新興종교인 東學이 「輔國安民」을 부르짖으며 水雲 崔濟愚에 의해서 1860年 4월에 창도되었는데, 東學이 갖고 있는 思想에는 당시 一般民衆들의 要求와 결부될 수 있는 人間平等, 斥倭洋 등 社會的 사상을 갖고 있었다.

東學이 一般民衆들 속으로 급속히 퍼지자 朝鮮政府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1864年 大邱에서 水雲 崔濟愚를 左道惑民의 罪로 梟首刑에 처하였다.

東學은 第2代教主 崔時亨이 등장하면서 다시 교세가 擴張되어 나갔는데, 이때 東學教徒들은 억울하게 죽은 教祖의 罪를 신원하기 위하여 일련의 教祖伸冤運動을 일으켰다.

1871年 李弼濟起兵부터, 1892年 參禮集會, 1893年 2월에 서울伏閣上疏, 1893年 3월에 巖恩集會 등을 展開하였다.

이 教祖伸冤運動이라는 宗教的 運動에서 教祖伸冤이라는 東學側의 目標은 失敗하였으나 몇 가지 주목할만한 性格을 가지고 있다. 東學은 이 일련의 宗教運動을 통하여 組織이 整備되어 全國的인 規模로 퍼져나갔으며, 宗教運動 過程에서 어느 정도 一般民衆들이 政治的, 社會的 要求를 노출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東學은 教祖伸冤運動을 통하여 發展하는 過程에서 宗教라는 性格에서 그 한계를 나타냈는데, 특히 第2代 教主 崔時亨은 어떠한 형식의 大衆的인 運動도 반대하였다. 이것은 東學이 갖고 있는 無爲而化思想에 根據를 두는 것으로서 東學으로 하여금 더욱 觀念論的 性格을 띠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東學의 性格은 政治

的 限界性を 지니게 되었고, 이러한 政治的 限界性은 體制構想의 觀念性과 政治機能의 缺如로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體制構想의 이러한 觀念性은 東學의 窮極的 目標인 「地上天國」을 너무 상상적이고 實現不可能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政治的으로는 아무런 목표제시도 아니되며, 이러한 政治的 機能의 缺如는 地上天國 實現이라고 하는 본래의 目標를 爲하여 오직 자기수련에 있는 東學의 無爲而化思想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894年 1月 전라도 古阜에서 일어난 民亂을 原因으로 發生한 甲午農民蜂起는 우리 민족의 역사상 큰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韓國 近代史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이 事件은 처음에 反封建的 性格을 띠면서 發生하였는데 당시 朝鮮社會의 對外的 對內的 矛盾으로 因하여, 무너져가는 朝鮮王朝에 대한 누적된 一般民衆들의 불만이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이었다.

비록 처음에는 反封建的 性格을 띠면서 發生하였으나 나중에는 民族主義的 性格을 띠어 反外勢, 反侵略이라는 性格을 띠어 全國的으로 퍼져 나갔으나 日本軍의 무력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失敗로 끝이 났다.

1894年에 일어난 甲午農民蜂起에는 東學의 要素가 포함되어 있어 東學과 甲午農民蜂起에 對한 關係가 問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甲午農民蜂起의 展開過程에서 나타난 주장속에는 宗教的 性質을 가진 內容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甲午農民蜂起 指導者인 全瑛準이가 東學教徒가 아니라는 사실은 甲午農民蜂起를 宗教的 시각에 의해서는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없다는 點이 確認된다.

그러나 東學은 直接的으로 甲午農民蜂起와는 關聯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範圍內에서 甲午農民蜂起에 기여한 점은 認定할 수 있다. 즉 東學에 나타난 侍天主思想은 甲午農民蜂起에서 주장하는 朝鮮社會의 封建的 신분질서인 계급적 신분구조 타파에 커다란 影響을 미쳤으며, 東學의 包組織은 甲午農民蜂起가 全國的인 規模로 일어날 수 있는 組織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東學의 役割을 부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甲午農民蜂起는 歴史的으로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서 韓國 近代史에 重要な 位置를 차지한다. 따라서 甲午農民蜂起는 民族保存과 近代化를 指向한 최초의 組織的인 大衆運動일 뿐만 아니라 華夷觀과 같은 비자주적인 사상에 오염되지 않은 民族主義運動이었다는 점과 韓國의 近代化에 政治的으로는 主權在民의 의식을 鼓吹시켰으며, 社會的으로는 封建的 身分秩序인 階級的 身分構造 타파에 努力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국, 1894 年에 일어난 甲午農民蜂起는 宗教的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韓國 近代史의 흐름인 反封建・反侵略이라는 政治的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아울러 필자는 甲午農民蜂起에 나타난 基本的 性格을 「運動」이 아니라 「革命」¹⁰⁷⁾의 性格을 갖고 있는 點을 고려할 때 甲午農民蜂起의 名稱을 甲午農民革命이라 指稱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107) 여기서 革命의 定義로 使用된 概念은 比較的 짧은 기간 동안에 社會的, 經濟的, 文化的 또는 政治的 體制안에서 일어나는 根原的 變化를 의미한다. L.P.바라다트, 前揭書, P.71 參照.

參 考 文 獻

1. 單 行 本

- 金雲泰 (外). 「韓國政治論」. 서울: 박영사, 1984.
- 金允植. 「續陰晴史」.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1.
- 金義煥. 「우리나라 近代史 論攷」. 서울: 三協出版社, 1964.
- 노태구 (편). 「東學革命研究」. 서울: 백산서당, 1981.
- 高永復. 「現代社會心理學」. 서울: 法文社, 1974.
- 朴文玉. 「韓國政府論」. 서울: 박영사, 1963.
- 申福龍. 「東學思想과 甲午農民革命」. 서울: 평민사, 1985.
- 이현희 (편). 「東學과 東學革命」. 서울: 청아출판사, 1984.
- 李基白. 「韓國史新論」. 서울: 일조각, 1978.
- 李鉉淙. 「韓國의 歷史」. 서울: 대왕사, 1983.
- 金敦化. 「天道教 創建史」. 서울: 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 白種基. 「韓國近代史研究」. 서울: 박영사, 1981.
- 趙芝薰. 「韓國文化序說」. 서울: 탐구당, 1984.
- 吳知泳. 「東學史」. 서울: 탐구당, 1974.
- 金庠基. 「東學과 東學亂」. 서울: 대성출판사, 1947.
- 崔玄植. 「甲午東學革命史」. 서울: 금강출판사, 1980.
- 韓佑旻. 「東學亂 起因에 關한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 鄭 喬. 「大韓季年史」.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1.
- L.P.바라다트. 신복용 外 (譯). 「현대정치사상」. 서울: 평민사, 1983.

2. 論 文

- 申福龍. “東學의 唱道와 展開過程.” 「韓國政治學會報」, No.18, 1984.
- . “東學思想의 時代的 背景.” 건국대학교 「학술지」, No.28, 1983.
- . “實錄 全瑋準.” 「月刊朝鮮」, 9月號, 1981.
- 韓佑勳. “壬午軍亂때의 日本의 對韓政策에 關한 考察.” 성균관대학교 「論文集」, No.10, 1972.
- . “甲申政變에 關한 考察.” 성균관대학교 「論文集」, No.7, 1969.
- . “東學亂 起因에 關한 研究.”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 No.3, 1964.
- 金昌杰. “東學의 民衆教化理念 研究.” 인하대학교 「인문과학」, No.18, 1982.
- 鄭鎮午. “東學의 政治思想.” 제주대학교 「論文集」, No.20, 1985.
- 李玟洙. “東學의 政治思想史的 研究.” 대구대학교 「사회문화연구」, No.3, 1983.
- 白種基. “東學思想의 형성과 전개 및 東學亂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No.14, 1981.
- 曹佐鎬. “한말 호국사상과 민족의 자강운동.” 성균관대학교 「人文科學」, No.9, 1974.
- 金義煥. “東學農民運動史 研究.” 부산여자대학 「論文集」, No.3, 1975.

< Abstract >

**A Study of Development Process of Dong Hak in relation to
the 1894 Peasants' Revolution**

Koh Chun-il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Goh Sung-jun

Although 1894 peasants' revolt has effected on our recent history in the meaning of our diverse history, We cannot recently establish its character and conception by means of our different point of view.

The aim of this study is based on not only to solve these kinds of problem but also to help establish the character and conception about 1894 peasants' revolt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relation to Dong-hak and 1894 peasants' revolt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Dong-hak.

Dong-hak is one of new religions which happened in the end of 19C, Cho-Sun Dynasty. It had revolutionary social thoughts with the national organization, and especially its movement for the exoneration of the Founder from guilt in 1871 to 1893 was politically congregated.

Even if Dong-hak had its thoughts base and organization with grass-roots, it had come into conflict with peasants, core powers of peasants revolt happend demanding the correction of political fuction because it had not remarkably systematic constraction of policy.

1894 peasants' revolt directly stemmed from Go-boo peasants' uprising bears no relation to Dong-hak because leader who joined the peasants' uprising are respectively differen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December, 1986.

Therefore, 1894 peasants' revolt will not be understood in the religious vision of Dong-hak but be comprehend in the political vision of peasants' uprising continuously come down from the end of Cho-Sun dynasty.

In the establishment of conception, we can confirm that 1894 peasants' revolt is called 1894 peasants' revolution because it has revolutionary character.

